

유아의 신체상 변화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요인*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Changes in the Body Image of Young Children: Body Perception and Related Factors

최인숙¹

Insuk Choi¹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body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using a short-term longitudinal design, then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body percept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65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at were recruited from five institutions. An 11-month, two-time point longitudinal design was used in which children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to examine the changes in body perception. At the second time point, children were assessed with an additional measure to investigate self-esteem, and their mothers also reported on maternal factors and children's media experience through a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independent t-test, correlations and ANOVA.

Result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of children's negative body perception over time. Children's media exper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body perception. Mothers whose children showed higher body mass index (BMI) sent more verbal messages about their child's weight reduction. In addition, children's negative body percep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hysical self-esteem.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nly the physical self-esteem according to the level of children's body percep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would sugges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support intervention and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body image of young children.

key words young children's body image, body perception, self-esteem, mother, media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20105)

¹ 제1저자(교신저자)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aneschoi01@wku.ac.kr)

I. 서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외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날씬하고 마른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욕구가 지나칠 때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와 현재 자신의 상태 사이에 괴리가 커져 심리적인 불만을 초래하고 다른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8)가 발표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아동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하위권에 있으며,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이 자신의 몸이나 외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16개국 중 15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18년 아동 실태조사 결과(류정희 등, 2018)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이 학업 비중이 높고 신체활동이 감소하여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는 자신의 신체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자기 신체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나 통계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신체인식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사고, 인식, 자각이나 감정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신체상이라고 하였다(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신체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감정, 인식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신체를 포함한 외모에 대한 걱정이 이후에 정신건강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Goldschmidt, Wall, Choo, Becker, & Neumark-Sztainer, 2016; Paxton, Neumark-Sztainer, Hannan, & Eisenberg, 2006)에서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신체상은 청소년의 섭식장애나 건강에 해로운 섭식행동, 성인의 운동 중독이나 약물 중독등과도 관련이 있었다(Neumark-Sztainer, Paxton, Hannan, Haines, & Story, 2006; Pope, Kanayam, & Hudson,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되었는데 부정적인 신체상이 아동기에 형성되고 이것이 성장한 후에도 이어진다는 결과(Knafo, 2016)를 고려한다면 아동기 초기의 신체상 형성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체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외모와 체형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선행연구(김하중, 김주연, 김경숙, 2012)에서는 유아의 외모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여아가 남아에 비해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Cramer와 Steinwert(1998)의 연구에서는 4세 경부터 유아가 특정한 신체에 대한 선호 또는 편견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유아도 자기 신체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이나 평가를 하게 되고 이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아의 발달이나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만 5세 미국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Davison, Markey, & Birch, 2003)에서는 5세에서부터 9세까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과체중에 대한 걱정이 과도한 섭식 제한 등의 해로운 식사습관, 부적응적인 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뿐 아니라 어린 아동도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런데 유아의 신체상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김하중 등, 2012; 김희영, 김유환, 김경숙, 2012; 박은혜, 이성희, 2010)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신체 이해, 외모와 체형에 대한 인식을 횡단 연구방법으로 고찰하고 있어 유아의 신체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체상을 유아가 평가하는 자신의 신체 인식에 한정해서 신체의 주관적 인식이 가능해지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단기 종단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먼저 개인요인으로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유아 개인의 실제 신체크기나 체중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Burgess & Broome, 2012; Dunphy-Lelii, Hooley, McGivern, Skouteris, & Cox, 2014; Musher-Eizenman, Holub, Edwards-Leeper, Persson, & Goldstein, 2003)에서는 성인들은 자신의 신체 비만도나 체중을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아기에는 자신의 신체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인지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객관적인 신체크기, 즉 신장과 체중을 고려한 신체특성과 유아의 신체 인식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유아의 신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환경 요인이다.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운 환경은 부모와 가족이며 이 중에서도 주양육자이면서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하나이다.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상이나 섭식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섭식 태도나 다이어트가 청소년기 자녀의 섭식 장애 증상과 관련이 있거나 어머니의 신체 관련 자신감이나 인식을 모델로 삼아 자녀의 신체상도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Paxton et al., 1991; Pike & Rodin, 1991)가 있는 반면에, 어머니의 신체 불만족이나 체중조절, 섭식 제한이 자녀의 섭식 태도나 인식과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Attie & Brooks-Gunn, 1989; Thelen & Cormier, 1995)도 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endy, Gustitus, & Leitzel-Schwalm, 2001)에서 어머니의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과 자녀인 유아의 신체인식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신체상 형성에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가 모델링할 수 있는 어머니 자신의 신체인식이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신체와 관련한 대화 정도가 유아기 자녀의 신체인식과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환경 요인으로 미디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다. TV 등의 미디어에서는 사회에서 선호되는 신체 특성이나 미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노출된 유아의 신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hnt & Tiggemann, 2006). 미디어 요인과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왔지만 미디어 요인과 유아의 신체상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어 유아가 자주 접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경험이 유아의 신체상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부정적인 신체상으로 인한 결과로 이것이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어왔다. 특히 자기 신체, 체력, 외모 등에 대한 만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상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이주연, 유조안,

2014; Donnellan, Trzesniewski, Conger, & Conger, 2007; Van den Berg, Mond, Eisenberg, Ackard, & Neumark-Sztainer, 2010). 즉,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 부정적 신체상을 형성할수록 자존감 수준도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김희영 등, 2012)에서는 신체 존중감과 또래 수용성이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직접적으로 유아의 신체인식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학령기 아동과 달리 또래와의 사회적인 비교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 유아기에 신체인식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적응에서 긍정적인 신체상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신체상을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로 보고 유아의 신체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신체인식과 개인특성 및 어머니요인, 유아의 미디어 경험, 자존감이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의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자존감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신체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 개인 특성(BMI) 및 어머니 요인(어머니 신체인식, 자녀 신체관련 대화), 유아 미디어 경험, 자존감은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자존감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개 대도시에 소재한 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중에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 참여에 동의한 유아 70명과 어머니 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 예비조사를 통해 3세 유아가 신체 평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70쌍의 유아와 어머니 가운데 질병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와 수용어휘력검사(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 수준을 통과하지 못한 유아 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쌍의 유아와 어머니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평균 월령은 1차년도에 62.20개월, 2차년도에 72.83개월이었다. 유아의 연령별 구성은 1차년도에 만 4세 유아 31명(47.7%), 5세 유아 34명(52.3%)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 = 65)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N(%) 또는 M(SD)	
유아		
성별		
남아	34(52.3)	
여아	31(47.7)	
월령(개월)	62.20(7.24)	72.83(7.26)
어머니		
연령(세)	36.56(3.66)	37.09(3.78)
교육 수준		
고졸이하	20(30.8)	
대학교 졸업	39(60.0)	
대학원 이상	6(9.2)	
아버지		
연령(세)	39.69(4.55)	39.72(4.65)
교육 수준		
고졸이하	14(21.5)	
대학교 졸업	39(60.0)	
대학원 이상	12(18.5)	
가구 월소득 수준		
200만 원 미만	3(4.6)	3(4.6)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24(37.68)	20(30.8)
4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14(21.5)	23(35.4)
600만 원 이상	22(33.8)	19(29.2)
무응답	2(3.1)	0(0)

2. 연구도구

1) 신체인식

신체인식의 측정 도구는 Stunkard, Sorenson, 그리고 Schulsinger(1983)가 성인용 신체 인식 척도로 제작한 신체 실루엣 그림을 수정한 아동 및 성인 대상 그림카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그림카드 척도는 마른 신체 타입에서 비만한 신체 타입을 점진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카드 척도로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신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그림을 고르고 이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 그림을 고른 뒤에 그 차이값을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의 타당도와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자 3인과 보육교사 2인이 척도를 검토한 후에 척도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 5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자간 신체인식 검사의 신뢰도는 .9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1) 유아 신체인식

유아의 신체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Stunkard 등(1983)이 성인의 신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신체 실루엣 그림 척도를 수정한 Collins(1991)의 아동 신체상 그림 척도와 Hendy 등(2001)의 아동용 신체상 평정 척도를 기초로 아동 대상 신체인식 그림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남아와 여아용 2개 세트로 이루어져있고 성별에 맞추어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림척도는 가장 마르고 왜소한 신체의 유아 그림(1점)부터 가장 비만인 신체의 유아 그림(7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크기가 커지면 점수가 증가하는 형태이다. 조사원이 그림카드를 제시하면 유아는 현재 자기 모습과 가장 유사한 그림을 선택하고 이어서 가장 멋있거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선택하였다. 현재 자기 신체 유형과 이상적 신체 유형 간의 차이는 유아가 자기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점수 범위는 0~6점이다.

(2) 어머니 신체인식

어머니의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은 Stunkard 등(1983)이 제작한 신체 실루엣 그림을 수정한 Thompson과 Gray(1995)의 성인 대상 신체상 평가 척도(Body-image Assessment Scale)를 토대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 신체인식 평가척도는 가장 마른 여자 그림(1점)부터 가장 비만인 여자 그림(9점)까지 신체 크기가 커지면서 점수가 증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현재 자기 모습과 가장 비슷한 그림을 선택함으로써 현재 자기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어서 가장 마음에 들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이상적인 신체를 평가하도록 했다. 유아용 척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의 신체 유형과 이상적인 신체 유형의 차이가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을 나타내며, 어머니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의 점수 범위는 0~8점이다.

2) 유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유아의 체질량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장과 체중을 확인하고 체질량지수 계산법 [체중(kg)/신장(m)²] 을 활용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신장과 체중을 모두 고려하여 신체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만도를 나타낸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담임 교사가 유아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유아간 비교를 위하여 표준화점수를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3) 어머니의 자녀 신체 관련 대화

어머니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화 중에 신체 관련한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endy 등(2001)이 사용한 어머니의 유아 자녀 대상 신체 관련 메시지 빈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살찌워라’ 대화

이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살이 찌서 더 크고 건강해지도록 유도하는 언어 메시지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살 찌려면 더 먹어라’, ‘너무 말랐다’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한다(3점)’로 이루어진 3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런 종류의 언어 메시지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1이었다.

(2) '살빼라' 대화

이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살을 빼서 마른 신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언어 메시지로 '살 빠지려면 적게 먹어라', '너무 살이 찼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한다(3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Cronbach's α 값은 .67이었다.

4) 유아의 미디어 경험

유아의 미디어 경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Dohnt와 Tiggemann(2006)이 개발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방법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디어 경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인기 있는 만화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신체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TV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유아가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는지 어머니가 그 빈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과 신문방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는 유아 대상 만화 프로그램이나 예능 TV 프로그램 10개를 정한 이후에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5개 프로그램(예: 짱구는 못 말려, 시크릿 주주 등)을 선정하여 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안 본다'(1점)에서 '자주 본다'(3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이며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60으로 나타났다.

5) 유아 자존감

유아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와 Pike(1984)의 자존감 그림 척도를 기초로 제작한 지성애, 김영옥 그리고 박희숙(2003)의 자아존중감 검사도구를 수정보완한 김래영과 정선영(2013)의 자존감 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 사회, 신체, 가족 자아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자존감과 인지, 사회, 신체, 가족 자존감 영역의 Cronbach's α 값은 .85, .66, .71, .62, .7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유아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약 11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유아 신체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년도에는 유아의 자존감, 유아의 미디어경험, 어머니의 신체인식, 어머니의 자녀대상 신체관련 대화 빈도를 조사하였다. 1차년도에 유아의 신체인식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도구를 수정하고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보육교사 총 5인의 검토를 거쳐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또한 유아의 미디어 경험 조사도구는 신문방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 추가로 검토에 참여하였다. 전체 연구는 각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1차년도에는 2017년 1월 25일부터 4주에 걸쳐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한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에는 2018년 1월 11일부터 4주에 걸쳐 1차년도 연구 참여 유아 가운데 기관에 남아 있고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한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조사원이 유아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어머니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합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유아 신체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개별 유아의 시간에 따른 신체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차년도 신체인식과 2차년도 신체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 신체인식 차이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분산분석 및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신체인식과 개인 특성(BMI) 및 미디어 경험과 자존감, 어머니 신체인식과 자녀 신체관련 대화의 일반적 경향

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유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는 1.69($SD = 1.07$)로 낮은 편이었으며, 2차년도에는 1.29($SD = .98$)로 1차년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유아는 전반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표 2. 기술통계분석 결과

(N = 65)

변수	전체 (N=65) M(SD)	Boy(N=34) M(SD)	Girl(N=31) M(SD)
1차년도 유아 신체인식	1.69(1.07)	1.41(.96)	2.0(1.13)
2차년도 유아 신체인식	1.29(.98)	1.41(1.13)	1.16(.78)
개인요인			
신장(cm)	116.45(6.48)	115.83(6.74)	117.14(6.22)

표 2. 계속

변수	전체 (N=65) M(SD)	Boy(N=34) M(SD)	Girl(N=31) M(SD)
체중(kg)	22.63(4.60)	22.25(4.35)	23.05(4.89)
BMI Z-score	.45(1.12)	.42(1.20)	.49(1.05)
어머니 요인			
신체인식	1.86(1.10)	1.73(1.11)	2.00(1.20)
“살찌워라” 대화	1.79(.53)	1.80(.29)	1.77(.54)
“살빼라” 대화	1.31(.50)	1.16(.29)	1.48(.63)
유아 미디어 경험	1.56(.42)	1.46(.38)	1.67(.42)
유아 자존감 전체			
인지	3.61(.40)	3.56(.42)	3.67(.38)
사회	3.17(.59)	3.08(.64)	3.28(.51)
신체	3.19(.51)	3.16(.54)	3.23(.48)
가족	3.12(.65)	2.97(.72)	3.28(.54)

유아의 성별에 따른 신체인식 수준은 1차년도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년도에는 남아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비교적 여아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신체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1차년도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26, p < .05$). 연령에 따른 신체인식에서의 차이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 표준 점수는 0.45($SD = 1.12$)로 나타났고, BMI 표준점수를 이용해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2017)에 따라 조사대상 유아의 신체 유형을 분류한 결과 표준형은 70.3%로 대부분의 유아가 표준 체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 매력을 강조하거나 관련 내용이 많은 미디어 경험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유아의 자존감은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도 인지영역의 자존감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어머니의 자녀 신체관련 대화를 하는 수준도 다소 낮았는데 “살을 찌워라”라는 대화를 “살빼라”라는 대화보다는 비교적 더 자주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2. 유아 신체인식의 변화

유아의 신체인식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차년도에 유아 대상으로 신체인식을 조사하고 약 11개월 후 2차년도에 유아의 신체 인식을 다시 조사하였다. 개별 유아의 신체인식이 시간이 지난 뒤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신체인식 변화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1차년도 유아신체인식	1.69	1.07	2.20*	.031
2차년도 유아신체인식	1.29	.98		

* $p < .05$.

개별 유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간이 지난 뒤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20, p < .05$). 다시 말해,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아 신체인식과 개인 특성(BMI), 어머니 요인(어머니 신체인식, 자녀 신체관련 대화), 유아 미디어 경험, 및 자존감 간의 관계

2차년도 유아의 신체인식과 유아의 신체특성(BMI), 어머니 신체인식, 어머니의 자녀 대상 신체 관련 대화 빈도, 유아의 미디어 경험, 자존감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아의 미디어 경험 요인이 유일하게 유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1, p < .05$). 즉, 유아가 신체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 미디어 시청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1. 2차년도 유아 신체인식	1										
2. 유아 BMI Z-score	-.19	1									
3. 어머니 신체인식	-.24	.32**	1								
4. 어머니 “살찌워라” 대화	.15	-.29*	-.21	1							
5. 어머니 “살빼라” 대화	-.23	.50**	.40**	-.25*	1						
6. 유아 미디어 경험	.31*	.07	.16	.05	.24	1					
7. 유아 자존감_전체	.08	-.18	-.18	-.03	-.14	.20	1				
8. 자존감_인지	.15	-.17	-.17	.01	-.23	.18	.45	1			
9. 자존감_사회	.10	-.05	-.05	-.01	-.05	.15	.31	.45	1		
10. 자존감_신체	-.28*	-.19	-.18	-.03	-.13	-.03	.41	.31	.26	1	
11. 자존감_가족	.18	-.13	-.15	-.07	-.05	.24	.69	.41	.69	.17	1

* $p < .05$, ** $p < .01$.

한편, 유아의 BMI 표준점수는 어머니의 부정적 신체인식($r = .32, p < .01$)과 어머니의 “살빼라”라는 대화($r = .50, p < .01$)와는 정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살찌워라”라는 대화($r = -.29,$

$p < .05$)와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BMI 점수가 높을수록 신장 대비 체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가 자녀인 유아에게 ‘살이 너무 찼다’거나 ‘살을 빼라’라는 말을 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살을 찌우라’는 말을 하는 빈도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과 유아의 신체자존감이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r = -.28, p < .05$). 즉,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신체에 대한 자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신체인식 수준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값 분할 방법(median split method)(Martin, Wertheim, Prior, Smart, Sanson, & Oberklaid, 2000)을 이용하여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집단을 3개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정적 신체 인식 값이 0인 유아집단은 현재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만족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부정적 신체인식의 중앙값인 1을 기준으로 1에 해당하는 집단을 저불만 집단, 중앙값 1보다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을 고불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3개 집단의 자존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 유아의 신체인식에 따른 자존감 차이

구 분	유아 신체인식						F	Scheffé
	만족 ^a (N = 12)		저불만 ^b (N = 32)		고불만 ^c (N = 21)			
	M	SD	M	SD	M	SD		
전체	3.20	.53	3.25	.38	3.33	.37	.48	
인지	3.47	.57	3.62	.35	3.68	.35	1.08	
자존감	3.19	.72	3.05	.59	3.35	.47	1.68	
신체	3.21	.51	3.23	.43	2.98	.57	3.22 [*]	b > c
가족	3.04	.85	3.01	.62	3.33	.54	1.62	

* $p < .05$.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신체 자존감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22, p < .05$). 그 중에서도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낮은 저불만 집단 유아의 신체자존감이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높은 고불만 집단 유아의 신체자존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체인식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단기종단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4-5세 유아의 신체인식을 약 11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신체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년도에 유아 개인의 신체특성(BMI), 미디어경험, 어머니의 신체인식 및 자녀대상 신체 관련 대화 빈도를 조사하고 유아의 신체인식, 자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아의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자존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유아의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유아가 평가한 자기 신체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체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대상 유아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은 중간 이하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4-5세 유아가 약 11개월이 지난 후에 부정적 신체인식이 변화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준이 낮아져서 유아의 신체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가 아동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다가 사회적 비교가 정착되는 학령기 이후에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Marsh, Craven, 그리고 Debus(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외모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김하종 등(2012)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자아개념을 고찰한 김재봉(1986)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아개념이 4세까지 긍정적으로 발달하다가 이후 다시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이다. 김재봉(1986)의 연구가 각 연령 집단을 횡단연구방법을 적용해 연령별 차이를 비교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개별 유아의 변화를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기에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표준 체형인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발달로 인한 신체적 유능감이 증가하면서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신체 사이즈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신체인식을 평가했지만 유아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단순히 신체크기 뿐 아니라 연령변화에 따른 신체 운동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주요 변인인 유아 개인의 신체 특성(BMI), 어머니 요인(어머니 신체인식, 자녀 대상 신체 관련 대화), 유아의 미디어 경험과 부정적 신체인식,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유아의 미디어 경험이 부정적 신체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TV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선호하는 신체 특성이나 미의 기준을 자주 드러내는 TV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시청 경험이 많을수록 유아의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Dohnt와 Tiggemann(2006)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마른 신체의 여성이 나오는 미디어 광고를 본 여자 청소년이

자기 신체에 대해 더 불만스러워한다고 보고한 Hargreaves와 Tiggemann(200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달리 유아의 신체특성인 BMI나 어머니 신체인식, 자녀 신체관련 대화는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의 경우에 자신의 신체 크기나 실제 비만정도 등 BMI와 신체상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McCabe & Ricciardelli, 200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 대부분이 표준체형이라는 점 때문에 유아의 BMI와 신체인식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아의 인지적 한계 때문에 성인에 비해 신체크기나 비만 등에 대해 엄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Musher-Eizenman et al., 2003)도 있어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신체 타입을 고려해 표집하여 유아가 자신의 신체 타입에 따라 실제 신체 크기에 대한 자각이나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어머니 요인은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신체인식과 유아의 신체인식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Hendy 등(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신체관련 대화 정도 또한 자녀인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ill, Weaver, & Blundell, 1990; Paxton et al., 1991; Smolak, Levine, & Schermer, 1999)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신체인식이나 섭식행동 등이 연령이 많은 학령기나 청소년기 자녀에게 모델링 효과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자녀의 신체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 또한 자녀의 태도나 사고보다는 섭식행동이나 다이어트 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기라는 발달단계에서의 특성상 섭식 문제가 없는 일반 어머니가 표준체형을 가진 자녀에게 체중조절보다는 신체 발달을 강조하게 되어 어머니의 신체인식이 유아의 신체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유아의 체형에 따라 어머니의 모델링 효과를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은 신체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신체에 대한 유능감 또는 자신감 수준도 낮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신체인식과 자존감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전체 자존감과 인지, 사회, 가족, 신체 자존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여기에서도 신체 자존감에서의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즉,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부정적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신체자존감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신체와 관련된 영역에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체적 유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주연, 유조안, 2014; Donnellan et al., 2007; Van den Berg et al., 2010)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hroff & Thompson, 2006)에서 신체에 대한 만족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 선행연구는 자존감을 전반적으로 자신의 가치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여 신체상이나 신체만족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 자존감 그림 척도를 사용

하여 세부 영역에 대한 유능감을 그림카드로 구성하여 유아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신체인식과 신체 자존감에서만 관련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유아는 발달적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추상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Selman, 1980). 따라서 유아의 자존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영역에 따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림카드에 대해 자신과 가까운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척도의 특성으로 인해 신체 외형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인식이 신체 영역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의 신체인식과 자존감의 관계에서의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발달적으로 자존감 형성 과정에서 신체상의 역할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체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는 점을 종단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신체인식의 발달적 변화를 단기적으로나마 고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기에 자주 접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유아의 미의 기준이나 인식을 형성하는데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유아기부터 신체나 외모에 대한 건강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를 위해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유아의 건강한 자존감 발달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긍정적 신체상 형성을 위한 교육과 신체 특성으로 인한 편견을 방지하는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유아의 신체 존중감과 또래 수용성이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김희영 등(2012)의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유아의 신체자존감의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응을 위해서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관에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이나 활동프로그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아 대상 TV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유아가 왜곡된 신체상을 형성하지 않고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단연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2차년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참여한 사례수가 적어 변인 간의 인과관계까지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 종단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2개 시점에서 신체인식을 측정하는데 그쳤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신체인식의 변화와 관련요인을 확인한다면 발달적 변화 궤적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아버지, 또래, 교사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이들 변인을 포함시켜 유아의 긍정적 신체상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래영, 정선영 (2013). 활동중심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 32, 35-60.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어휘력검사 (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재봉 (1986). 3, 4, 5세 유아의 자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중, 김주연, 김경숙 (2012). 외모 및 체형에 대한 5세 유아의 인식 및 경험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6**(5), 209-231.
- 김희영, 김유환, 김경숙 (2012). 유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존중감, 또래 수용성,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2**(4), 73-91. doi:10.18023/kjece.2012.32.2.004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등 (2018).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혜, 이성희 (2010). 만 5 세 유아의 신체상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14**(1), 227-252.
-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8. 8). **2018 한국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자료집**. https://www.sc.or.kr/news/report_View.do?NO=69827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 이주연, 유조안 (2014).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과제중, 비만 및 신체상만족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29-55.
- 지성애, 김영옥, 박희숙 (2003). 유아의 자아 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7**(1), 43-67.
- 질병관리본부 (2017. 12).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http://www.cdc.go.kr/board.es?mid=a20504000000&bid=0014&act=view&list_no=128322에서 2018년 3월 5일 인출
- Attie, I., & Brooks-Gunn, J. (1989). Development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girl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70-79. doi:10.1037/0012-1649.25.1.70
- Burgess, J. N., & Broome, M. E. (2012). Perceptions of weight and body image among preschool children: A pilot study. *Pediatric Nursing*, *38*(3), 147-152.
- Collins, M. E. (1991). Body figure perceptions and preferences among preadolescent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0*(2), 199-208. doi:10.1002/1098-108X(199103)10:2<199::AID-EAT2260100209>3.0.CO;2-D
- Cramer, P., & Steinwert, T. (1998). Thin is good, fat is bad: How early does it begi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3), 429-451. doi:10.1016/S0193-3973(99)80049-5
- Davison, K. K., Markey, C. N., & Birch, L. L. (2003).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atterns in girls' weight concerns and body dissatisfaction from ages 5 to 9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3*(3), 320-332. doi:10.1002/eat.10142
- Dohnt, H. K., & Tiggemann, M. (2006). Body image concerns in young girls: The role of peers and media prior to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2), 135-145. doi:10.1007/s10964-005-9020-7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Conger, K. J., & Conger, R. D. (2007).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of self-evaluations during young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2), 453-472. doi:10.1016/j.jrp.2006.06.004

- Dunphy-Lelii, S., Hooley, M., McGivern, L., Skouteris, H., & Cox, R. (2014). Can I reach that sticker? Preschoolers' practical judgments about their own and others' body size.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5*(4), 584-598. doi:10.1080/15248372.2013.797905
- Goldschmidt, A. B., Wall, M., Choo, T. -H. J., Becker, C., & Neumark-Sztainer, D. (2016). Shared risk factors for mood-, eating-, and weight-related health outcomes. *Health Psychology, 35*(3), 245-252. doi:10.1037/hea0000283
- Hargreaves, D. A., & Tiggemann, M. (2004). Idealized media images and adolescent body image: "Comparing" boys and girls. *Body Image, 1*(4), 351-361. doi:10.1016/j.bodyim.2004.10.002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doi:10.2307/1129772
- Hendy, H. M., Gustitus, C., & Leitzel-Schwalm, J. (2001).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body image in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44*(9-10), 557-569. doi:10.1023/A:1012291008803
- Hill, A. J., Weaver, C., & Blundell, J. E. (1990). Dieting concerns of 10-year-old girls and their mother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3), 346-348. doi:10.1111/j.2044-8260.1990.tb00894.x
- Knafo, H. (2016). The development of body image in school-aged girls: A review of the literature from sociocultural, social learning, psychoanalytic, and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s. *The New School Psychology Bulletin, 13*(2), 1-16.
- Marsh, H. W., Craven, R., & Debus, R. (1998). Structur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concepts: A multicohort-multioccasion study. *Child Development, 69*(4), 1030-1053. doi:10.1111/j.1467-8624.1998.tb06159.x
- Martin, G. C., Wertheim, E. H., Prior, M., Smart, D., Sanson, A., & Oberklaid, F.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le of childhood temperament in the later development of eating concer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2), 150-162. doi:10.1002/(SICI)1098-108X(200003)27:2<150::AID-EAT3>3.0.CO;2-A
- McCabe, M., & Ricciardelli, L. (2001). Parent, peer, and media influences on body image and strategies to both increase and decrease body size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Adolescence, 36*(142), 225-240.
- Musher-Eizenman, D. R., Holub, S. C., Edwards-Leeper, L., Persson, A. V., & Goldstein, S. E. (2003). The narrow range of acceptable body types of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59-272. doi:10.1016/S0193-3973(03)00047-9
- Neumark-Sztainer, D., Paxton, S. J., Hannan, P. J., Haines, J., & Story, M. (2006). Does body satisfaction matter? Five-year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health behaviors in adolescent females and 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2), 244-251. doi:10.1016/j.jadohealth.2005.12.001
- Paxton, S. J., Neumark-Sztainer, D., Hannan, P. J., & Eisenberg, M. E. (2006). Body dissatisfaction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ve mood and low self-esteem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4), 539-549. doi:10.1207/s15374424jccp3504_5
- Paxton, S. J., Wertheim, E. H., Gibbons, K., Szmukler, G. I., Hillier, L., & Petrovich, J. L. (1991). Body image satisfaction, dieting beliefs, and weight loss behaviors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3), 361-379.
- Pike, K. M., & Rodin, J. (1991). Mothers, daughters, and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2), 198-204. doi:10.1037/0021-843X.100.2.198
- Pope Jr, H. G., Kanayama, G., & Hudson, J. I. (2012). Risk factors for illicit anabolic-androgenic steroid use in male weightlifters: a cross-sectional cohort study. *Biological Psychiatry*, 71(3), 254-261. doi:10.1016/j.biopsych.2011.06.024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F.L.: Academic Press.
- Shroff, H., & Thompson, J. K. (2006). Peer influences, body-image dissatisfaction, eating dysfun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533-551. doi:10.1177/1359105306065015
- Smolak, L., Levine, M. P., & Schermer, F. (1999). Parental input and weight concern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5(3), 263-271. doi:10.1002/(sici)1098-108x(199904)25:3<263::aid-eat3>3.0.co;2-v
- Stunkard, A. J., Sorensen, T., & Schulsinger, F. (1983). Use of the Danish adoption register for the study of obesity and thinness. In S. Kety, L. P. Rowland, R. L. Sidman, & S. W. Matthysse (Eds.), *The genetics of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pp. 115-120). New York: Raven Press.
- Thelen, M. H., & Cormier, J. F. (1995). Desire to be thinner and weight control amo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Behavior Therapy*, 26(1), 85-99. doi:10.1016/S0005-7894(05)80084-X
- Thompson, M. A., & Gray, J. J.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body-image assessment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4(2), 258-269. doi:10.1207/s15327752jpa6402_6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an den Berg, P. A., Mond, J., Eisenberg, M., Ackard, D., & Neumark-Sztainer, D. (2010). The link between body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Similarities across gender, age, weight status, race/ethnicity, and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7(3), 290-296. doi:10.1016/j.jadohealth.2010.02.004

논문투고: 19.10.16

수정원고접수: 19.11.10

최종게재결정: 19.11.27